



CONTENTS

|    |                  |
|----|------------------|
| 4  | CEO Letter       |
| 8  | Trend ON         |
| 12 | Byucksan ON      |
| 14 | Change Maker     |
| 18 | Insight          |
| 22 | Hot Topic        |
| 24 | Keyword          |
| 28 | Byucksan Sharing |
| 30 | Story With       |
| 34 | Story G          |
| 36 | B News           |
| 38 | B Network        |

도담터 2023년호  
발행 및 편집인 김성식 발행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TEL. 02-2260-6114 www.byucksan.com  
발행일 2023년 9월 27일 담당자 인사혁신팀 강태연 과장 02-2260-6136 기획·디자인 PEOPLE PAGE 02-6674-0111

실린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으로 벽산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후위기는  
이 순간에도 어쩔 수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력을 통해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정해진 운명에 낙담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2023 <도담터>는 긍정적이면서 유연한  
자세야말로 다가올 기후변화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잠재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예술가는 말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상황은 정말 바뀔 수 있다’고 말이죠.



# Flexibility

(주)벽산, (주)하츠 대표이사  
CEO 김성식

## 본질의 고찰

지금 인류는 다방면에서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고, 생존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쟁, 기근, 홍수, 역병, 경기의 급속한 하강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 기업, 나라와 같은 공동체들이 명멸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과연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 생각, 가치가 장착되어야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번성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18년 동안 한 조직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체득한 자그마한 깨달음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 첫 번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 살다 보면 본질 이외의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본말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자.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선거의 승리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본질은 도외시되고, 비본질인 정쟁만 난무하게 되었다. 본질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가 부지기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포함한 국가의 한정된 역량은 낭비되고,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안타깝게도 나라 곳곳에서 그런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이다. 모든 의사결정이 그것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솔직히 돌아보자. 비효율을 양산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당 기업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 편견, 개인의 감정,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려지는 의사결정이 너무 많다. 이런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축적되면, 결국 그 기업은 수명을 다하게 되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본질에 충실하고 의사결정에 익숙한 조직은 가혹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조직은 비효율이 양산되는 조직에 비해 뛰어난 결과물을 생산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생존 가능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환경은 예상보다 급하고,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본질적이고 지체되는 결정(그것이 비록 옳은 결정일지라도)은 해당 공동체를 중요한 절목(節目)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의 반복은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인 창의성도 창의적 행위의 가치와 본질이 존재할 때 제대로 발휘된다. 또한 그 본질에 근거한 창의적 행위들이 반복될 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과 공동체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문화, 가치, 제도 등을 온전히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신중해야 한다.

-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하며,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인간은 늘 이상적 환경만 상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강하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를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 최소 한 번은 검토하며 최악의 수와 그 수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당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해야 한다.

또한 방향성을 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화뇌동은 절대 금물이다. 주변 사람, 경쟁자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초조한 마음에 일을 추진했다간 낭패 볼 확률이 아주 높다. 역량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비근한 예로 스스로 연구나 준비 없이 타인의 얘기만 듣고 주식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자신만의 페이스로 자신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다는 것을 다 따라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정보의 홍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겨내야만 한다. 가끔은 미디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해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감해야 한다.

- 때가 되고 예상했던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면 준비된 실행 안들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실행 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큰 틀 안에서의 주요 인자들이 다 짙어지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다. 이때는 스피드가 생명이다. 물론 오차 없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 불가결하다. 첫 번째로 언급한 예처럼, 평소 본질에 충실한 연습을 한다면 행동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 자신감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다.



“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며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인간은 늘 이상적 환경만 상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강하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를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 최소 한 번은 검토하며 최악의 수와 그 수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두어야 한다.

맺으며,

- 생성형 AI의 출현은 인터넷의 출현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 이상으로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도 빠를 것이다.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의사결정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자신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본질에 충실한 깊이를 더해야 한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찾아오는 기회와 위기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적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는 과감하고 빠르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다가올 미래에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녹지공간, 지속가능한 자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실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글 이태구(세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베를린 공대 공학박사)



# CARBON NEU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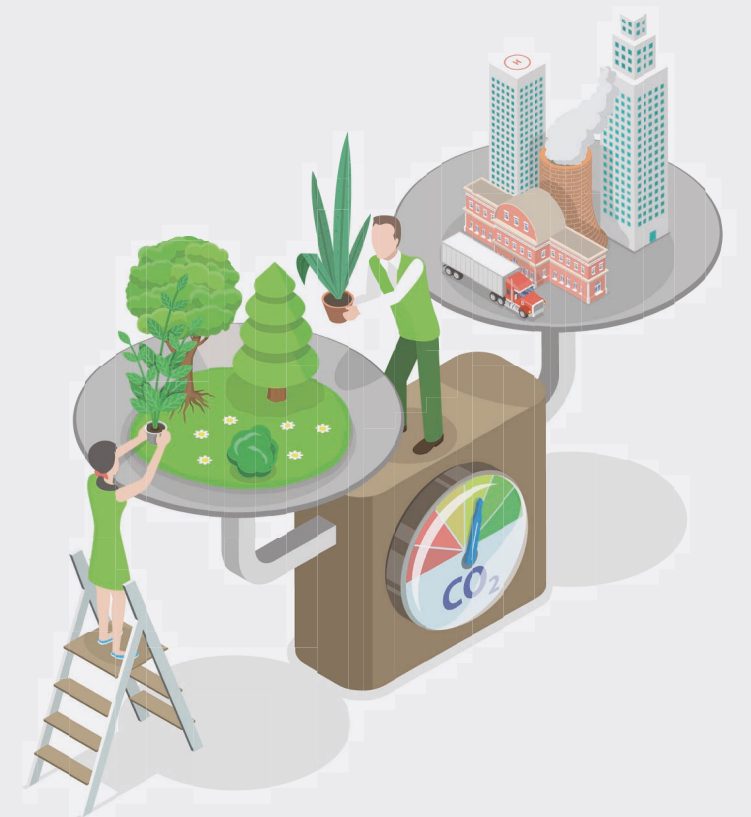
### 탄소중립, 더하기 빼기 제로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30년까지 32.8% 감축, 2050년까지 88% 감축'이 목표이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 목표는 건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전체 산업 중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 CO<sub>2</sub> 배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건축 수명은 20.5년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수명이 141년이나 되는 영국이나 103년의 미국, 86년의 프랑스, 79년의 독일에 비하면 한없이 짧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컸던 일본의 30년, 최근 개발 붐에 휩쓸린 중국의 25년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다. 외국의 경우 건축물의 개조 주기는 건축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20~50년으로 본다. 평균적으로 건물 개조는 55여 년마다 이뤄진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2050년에도 이러한 건축물은 대부분 존재할 것이기에 그린 리모델링은 필수불가결의 과제다.

철거 및 신축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봐야 한다. 전국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8.2%로 과반수 이상이다. 30년 전 지어져 단열 수준이 취약한 건축물은 약 37%로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후 건물은 단열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창호 기밀성능 저하, 기계설비 효율 저하로 인한 에너지 손실, 재실자의 건강과 쾌적성에도 취약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즉각적으로 성능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지만 탄소 저감 측면에서 리모델링된 건물이 현저히 적고 개선 수준이 너무 낮다. 현재는 신축 건물에 대한 기준조차 2050년



까지 탄소중립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 리모델링 의무화, 자금 지원 확대, 신축 및 리모델링은 기후 보호 정책에 중요한 도구인데, 아직 자금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미하다.

### 갈 길이 먼 탄소중립

건물을 기후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 건물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이 목표라면 적어도 에너지 혁신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 기존 건물은 새 건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도록 리모델링해야 하고, 난방 및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탄소중립적 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와 종합적 재생에너지원을



낮춰주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려면 건축 자재, 에너지, 노동력 등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구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원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리모델링 대상 건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경우가 많다. 탄소중립적 리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건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건설 및 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단열 성능 강화, 효율적인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개선된 공기 질 확보가 가능하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리모델링은 건설 부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공동주택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2015년경까지 건축 부문에서 40% 이상의 탄소배출을 저감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축뿐만 아니라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주거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베를린의 헬레스도르프(Hellersdorf)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는 당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진행했는데, 오늘날 탄소

리모델링 전 헬레스도르프 지역 공동주택단지



중립적 리모델링과 맥락이 달나다. 이 대규모 주거단지는 베를린 북동쪽 외곽에 자리하며, 1995년에 ‘생태적 측면에서의 대규모 주거단지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동 외벽 및 지하실 천장에 생태적 단열재료를 사용해 단열층을 설치하고, 화장실 세정 및 녹지를 위한 지붕 우수 활용 시설, 절수용 위생 시설 및 장비 설치, 태양열 집열판을 활용한 온수 공급 시스템, 태양전지를 통한 계단실 조명 및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다. 또한 쓰레기 분리작업을 통해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을 줄이고, 건물 외벽 녹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다.

외부 공간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친환경적인 재료로 교체해 녹지를 확대했으며, 잔디 포장과 보행자 도로의 투수성(透水性) 포장을 통해 우수 침투를 촉진했다. 또한 보행자 도로에서 제거된 콘크리트 조각은 돌담 설치 및 아파트 1층 테라스 바닥재로 재활용됐다.

리모델링 후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53% 정도 감소했으며, 이산화황가스 83%, 일산화탄소 49%, 일산화질소 10%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먼지 발생량은 기존 수준의 90% 이상을 감소시켜 환경적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40년이 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독일 헬레스도르프 지역의 사례는 지금 한국의 어느 주거단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지만, 아직 어디에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리모델링 이후 헬레스도르프 지역 공동주택단지

### 조금씩, 그러나 찬찬히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다. 건물 에너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핵심 원칙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조치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난방, 환기 및 공조 기술 최적화,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 사용,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고품질 단열재 설치 등이 있다.

둘째, 탄소중립 리모델링은 태양전기, 태양열 에너지, 풍력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재생가능 에너지는 화석 기반 전기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셋째, 리모델링 시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재료, 재활용 재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재료가 포함된다.

###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기존 건물을 다루는 현재의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설정한 기후보호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및 이산화탄소 감축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 기관은 세금 혜택, 보조금, 대출 등의 형태로 탄소중립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건축 업계 또한 대응 전략 준비에 따라 업계 생태계를 선점할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점진적 개발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 정체성과 공동체 정주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거 환경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처음엔 그냥 건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담는다. 이러한 기존 환경을 보존하면 사회적 유대감도 유지할 수 있다. 탄소중립적인 리모델링은 개별 건물의 지속적 사용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리·기후 조건에 맞게 장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 글쓴이 프로필

이태구 교수는 세명대학교 IT엔지니어링대학 건축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공학석사, 독일 베를린공대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생태건축,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속가능한 건축 리모델링, 건강건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기후와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 벽산의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개발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벽산은 기술연구소를 통해 ‘세상에 없는 부가가치 창출’을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고품질·고성능의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해 나가고 있다.

글 이제철 기술연구소 소장

### 국내 종합 건축자재 산업의 선두주자, 벽산

벽산은 그동안 국내 건축자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도 유기 압출재 단열재(XPS)의 대명사인 아이소핑크, 외장 마감자재인 베이스 패널, 불연 단열재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70여 년간 건축 분야에서 다져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제품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ESG라는 키워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 경제, 라이프스타일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벽산 기술연구소의 새로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벽산 기술연구소의 새로운 도약

현재 벽산의 기술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경쟁사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아지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과 급진하는 기술력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건축자재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키워드인 친환경(Eco Friendly), 에너지 절감(Energy Saving), 인간 친화(Human Friendly), 화재 안전성(Fire Safety)에 맞춰 제품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벽산의 주요 생산 제품인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등의 무기단열재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수지, 저HCHO 페놀수지 제품 개발과 단열성, 불연성능 개선 등의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미네랄울과 그라스울의 주요 원료인 폐유리슬래그 등을 활용해 자원을 순환하고, 친환경 발포제를 적용한 아이소핑크, 고효율 압출법 단열재 제품 등도 개발 중이다.

탄소중립 확보를 위한 제품(제조공정, 연료, 원료 등)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와 건축자재의 융복합 건식 벽체 시스템, 철골 내화 피복 시스템, 건식 충전 시스템 등의 다양한 건축자재 모듈화 및 시스템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조직이 구성된 벽산의 기술연구소는 12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전라북도 익산 연구소에서 경기도 화성의 독립된 연구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 연구와 소재산업 분야 연구 확대를 위해 R&D 투자, 연구개발 조직 확대 및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향후 기술연구소 조직 운영은 기존 건자재의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와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 다양한 미래의 원천 및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조직, 대외환경과 대외협력 등을 담당하는 조직, 시장 트렌드 및 경쟁사 특허분석 등의 기술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행기술 연구 조직은 회사의 성장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유기무기 소재의 원천 연

구와 자동차, 선박, 플랜트, 2차 전지 등에 사용되는 복합소재산업 등 미래기술과 선행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복합재를 연구하는 조직은 기존 건자재 산업의 강화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개발 개선 연구를 비롯해 고성능·고기능 건축자재 연구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 협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경쟁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안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다. 대내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술의 원활한 현장 접목을 유도하고, 관련 융복합 시스템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지원 및 기획하는 조직은 시장 트렌드 분석과 주요 경쟁사에 기술 대응을 위해 특허 출원, 연구관리 시스템의 기술 대응과 연구소 중장기 운영방안 등 연구소의 전반적 업무를 진행한다.

###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유연적 사고

기술연구소의 핵심 역할은 R&D 패러다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이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업무에 머무르기보다는 철저한 분석력을 기반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즉, 유연한 사고를 통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연구조직과 연구원들은 짧아진 제품수명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핵심기술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이때 상황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유연한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역량이 요구된다.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연구 개발 및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실패에도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다양한 대응방법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은 준비단계에서 모든 계산을 했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중간 변수가 생겼을 때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연구원의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술연구소는 사람·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R&R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연구체계와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벽산이 지속가능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기술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도시건축 분야의 심층 연구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람'에 집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건축 분야의  
다방면에서 연구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신중진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야기한다.

글 편집실 사진 전병석

건축을 공부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을과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학창 시절부터 사람과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과가 아닌 문과 출신으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공과대학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건축이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건축에 사람이 포함된  
도시건축은 어떨까'하고 말이죠.

졸업 후 10년 동안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일했어요. 199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세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입학했습니다. 대학마다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있는데 와세다대학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갔던 학교 연구실은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매우 강조했는데, 자연스럽게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의 인식이었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건축연구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일본 유학 후 1998년에 한국에 돌아와 모교인 성균관대 교수로 일하게 됐는데 하지만 의미  
있는 도시건축연구실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연구실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연구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앞으로 30년은 학교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로 어떤 도시  
연구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포괄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이름

### 도시에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중진 교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학사·석사,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석사,  
일본 와세다대 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의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으며  
도시와 사람, 환경을 생각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붙였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자’하는 마음이었죠.  
어떠한 주제를 연구하든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면 최소 한 학기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해야 해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도시재생 등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생활하면서 몸으로 부딪는 작업을 하기로 정했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 행정, 전문가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관점의 흐름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남준기념관



#### 건축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꾸준히 연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에서 사람은 수요자, 공급자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미래의 시민 사회입니다. 2100년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해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를 누구나 꿈꾸겠지요.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의식수준, 생활환경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불편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아픔과 투쟁을 거쳐 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제대로 살 만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죠.  
제가 실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돌이켜 보면 과연 끝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초반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을 들여다봤다면 지금은 서울의 원도심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경복궁 서쪽이나 서울 성곽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어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2014년 5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현장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창신송인은 동대문시장의 배후단지로 봉제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했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과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옛 한양도성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가지도록 해 서울을 고향처럼 느끼게 하고, 그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이 전면 철거라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통합적 도시 정비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철거식 재개발 위주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철거식 재개발의 부작용을 겪은 곳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 위주로만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보아야만 남겨둬야 할 것과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세심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감행하지 못해요. 고층 빌딩의 홍수 속에서도 도시 곳곳에 역사적 건축물로 가득한 풍경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지우는 것은 이야기를 지우는 것이고, 이야기를 지우는 것은 사람을 지우는 일이니까요.



#### 마을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프로젝트에서 마을회관 같은 곳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에서 지역공동체 자원은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이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유지와 운영입니다. 특히 창신송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는 백남준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창신동 생가터에 ‘백남준기념관’을 조성했어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뮤지엄 카페를 만들고, 주민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그곳이 어떠한 희망을 주고,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방문해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사회적으로 도시의 인구 소멸이 광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도시도 사람처럼 탄생과 성장, 쇠퇴 과정을 겪습니다. 도시가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 재편이나 인구 감소, 건축 환경의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SNS가 발달하면서 지역마다 공간적, 시간적 특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커요. 과거에는 산업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나 자원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현재의 도시는 특별한 점은 줄어들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요.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인상적이었거나, 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장소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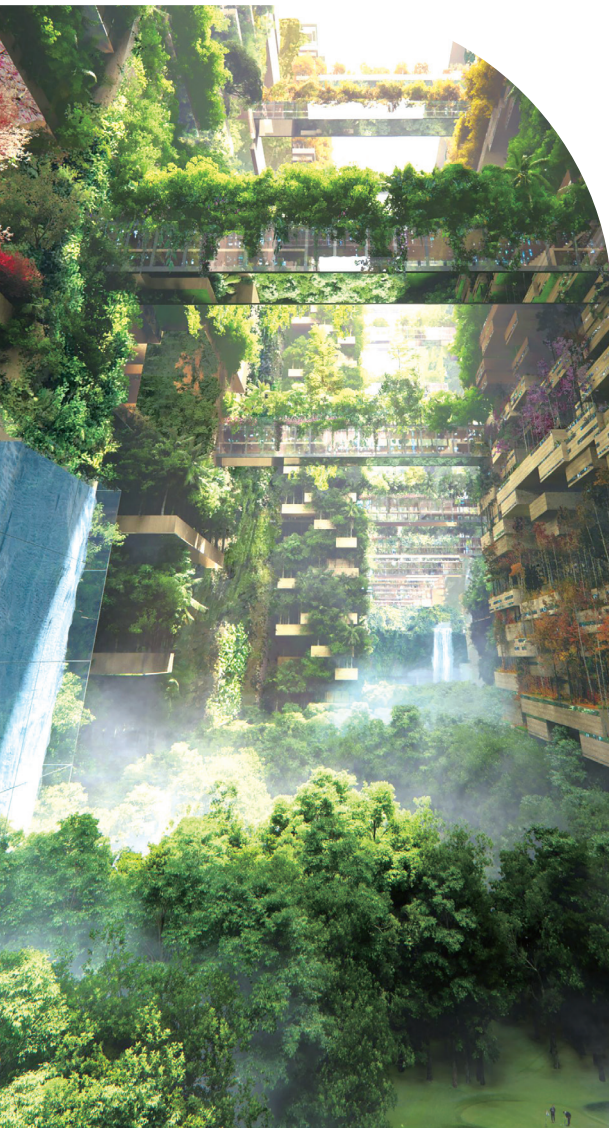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울의 익선동, 경복궁 서측, 수성동 계곡복원 등이 있고요. 특히 경의선-경춘선 숲길과 성수동 1가 2동(갤러리아포레 뒤편)이 예쁘게 잘 정비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곳은 모두 많은 이들이 오가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정비사업에서 숲과 연결된 시내와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수성동 계곡복원 프로젝트로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상을 떠나 태고의 아름다움을 세심하게 복원한 예로 뿌듯한 장소입니다.

서울을 지탱해주는 게 산과 강이라고 생각할 만큼 서울은 수변, 산자락과 둘레길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시간이 날 때 자전거를 타고 나가 서울의 44개 하천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니 자전거길을 만들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산책로를 만든 것인데 정작 하천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인공적인 것을 덜어내고 자연에 초점을 맞춘 하천 생태복원과 녹지조성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서울의 하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하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세운상가 동측입니다. 동대문 일대의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청구동, 다산동, 약수동까지 중구 지역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도시를 찾는 여행자들도 근사한 곳뿐만 아니라 서울의 진면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세계

#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미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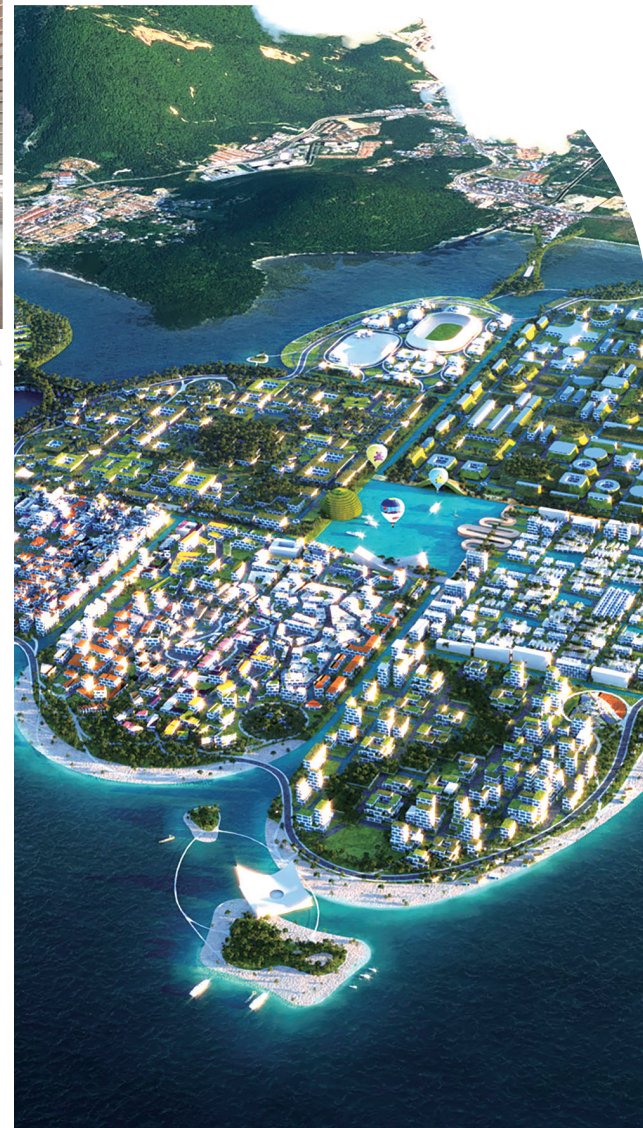


SAUDI ARA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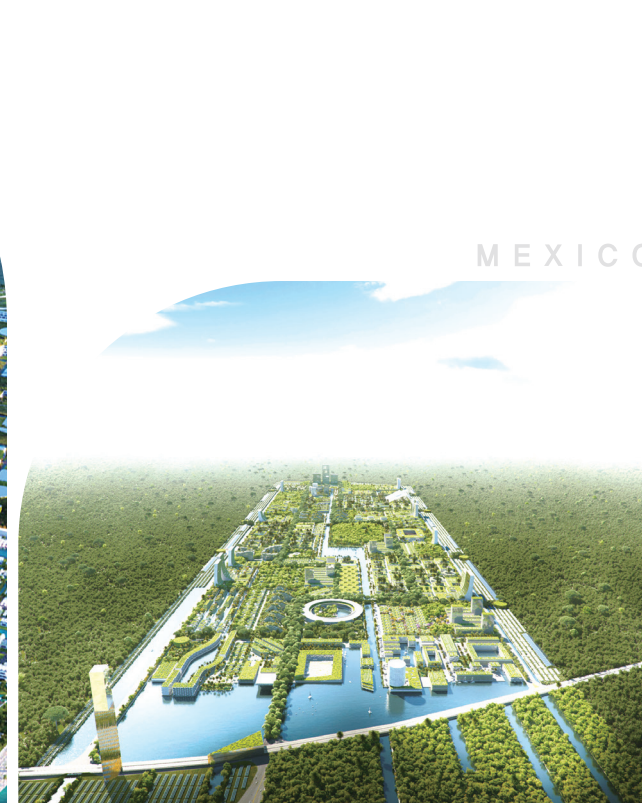


INDIA

FUTURE — CITY



MALAYSIA



MEXICO



MALDIVES



CANADA

기후변화로 인한 주거 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인류에게 차세대 첨단 도시가 하나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몰디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치로 내건 미래도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회사들이 합세해 상상 이상의 마스터플랜을 선보인다. 머잖아 현실이 될 세계의 미래도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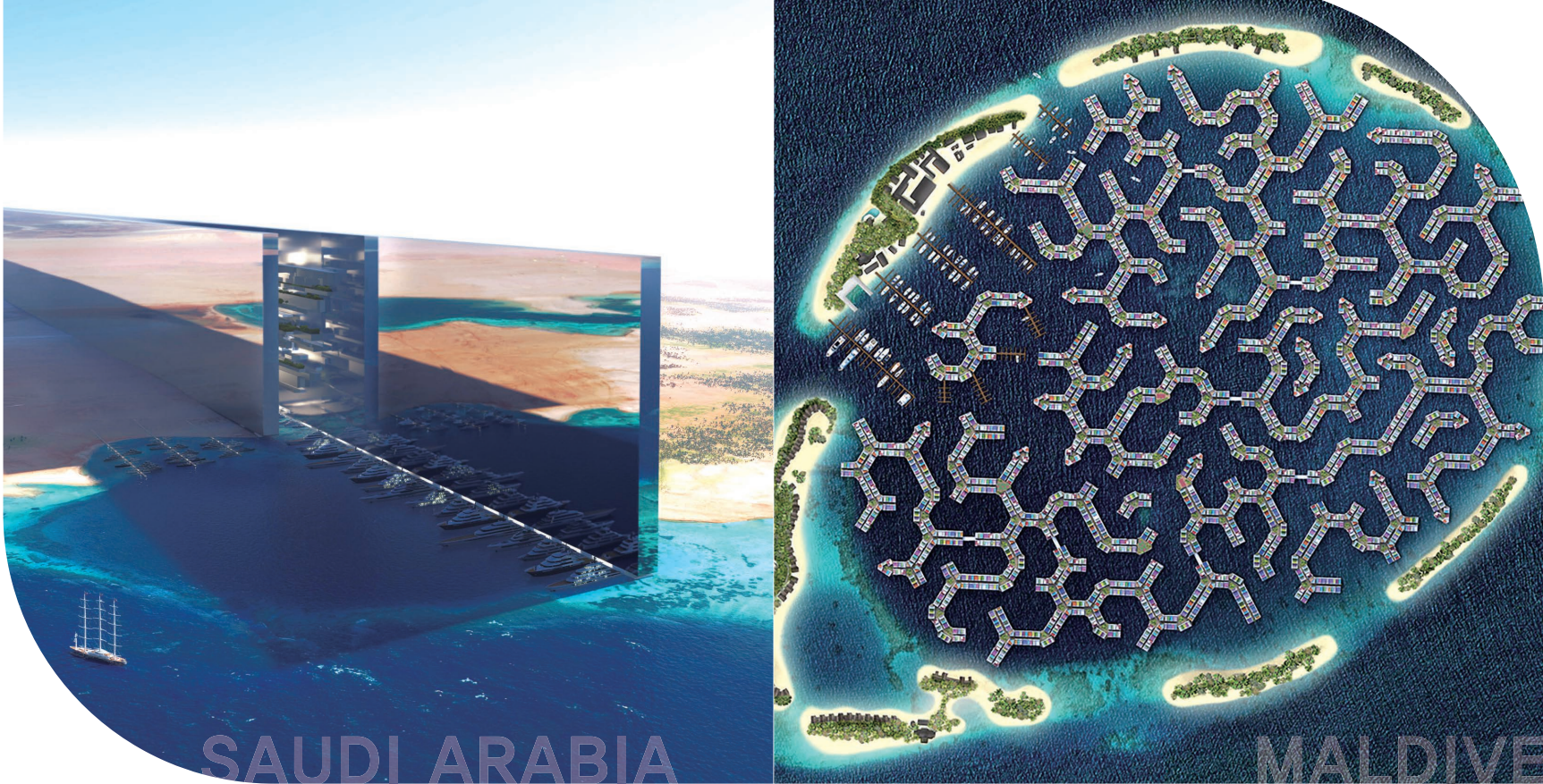
글 편집실 참고 자료 디존([www.dezeen.com](http://www.dezeen.com))



## SAUDI ARABIA

### 더 라인

2022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길이 170km, 높이 500m에 이르는 선형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바로 더 라인(The Line)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미래도시 개발사업인 '네움시티(Neom City)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스마트시티다. 더 라인은 방사형 구조로 확장되는 기존 도시 설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보호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네움시티 프로젝트는 더 라인을 비롯해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Oxagon),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Trojena)가 함께 진행된다. 더 라인은 초고층 건물 2개가 사막과 산악 사이에 170km 구간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되어, 통합 교통 시스템이 도시의 양쪽 끝을 20분 내로 관통한다. 선형도시에는 인구 9백만 명이 거주할 수 있지만, 폭은 200미터에 불과하다.



## MALDIVES

### 몰디브 플로팅 시티

몰디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건축 회사 워터스튜디오(Waterstudio)와 손잡고 2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 몰디브 플로팅 시티(Maldives Floating City)를 설계했다. 몰디브 플로팅 시티는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진정한 섬 도시'를 표방하며, 바다 위에 떠 있는 여러 개의 육각형 구조물 위로 5,000개의 부유식 주거지를 건설한다. 총 5,000개의 유닛으로 구성될 도시에는 주택은 물론 상점과 학교 등이 들어서며 그 사이로 운하가 흐른다. 도시 내에서는 태양열로 전력을 공급하며,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물을 재활용한다. 또한 에어컨 대신 심해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것이다. 이르면 2024년부터 임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도시 전체가 완공될 예정이다.



## INDIA

### 아마라바티

인도 크리슈나강둑을 따라 세워질 아마라바티(Amarāvati)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새로운 수도로 추진 중인 미래도시다.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회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 + Partners)는 도시 설계 안에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자신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연구성과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으며, 최근 인도에서 개발 중인 최신 기술들도 도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뾰족한 비늘이 위로 치솟은 형상의 주 정부 건물을 중심으로 도시를 배치하고, 녹지와 수변 공간으로 채운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 MALAYSIA

### 바이오다이버시티

말레이시아 바이오다이버시티(Biodiver City)는 페낭섬 해변을 끼고 건설될 1,821ha 규모의 인공섬 개발계획 프로젝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그룹 BIG(Bjarke Ingels Group)이 참여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섬을 연결하는 자율 교통망을 통해 차가 없는 친환경 도시를 꿈꾼다. 수련 잎이 펼쳐진 모양의 인공섬 3개가 나란히 만들어지고, 각각의 섬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게 될 예정이다. 대나무와 목재, 재활용 물질로 만든 콘크리트를 위주로 건물을 짓고, 구역별로 생태적 완충지를 두어 생물다양성을 지원한다.

## MEXICO

###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

이탈리아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는 멕시코 칸쿤 인근에 조성될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Smart Forest City)를 맡아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는 마야 문명을 바탕으로 자연과 신성한 세계가 만나는 곳에 세워지는 현대 도시 속 식물원"이자, "자연과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도시의 생태계"라고 설명했다. 557ha 지역에 750만 그루의 나무와 식물을 심어 공기 중 탄소를 줄이고, 식물로 우거진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인구 13만 명이 지속가능한 도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CANADA

### 더 오빗

캐나다의 스마트 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더 오빗(The Orbit)은 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토론토에 있는 건축 기업 파르티잔(Paritans)이 설계를 맡아 20세기 초 영국에서 등장한 정원 도시 운동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섬유광학, 드론,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촌을 배경으로 신기술을 균형 있게 도입해 현재 3만 명에 불과한 인구를 15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색 공공도서관 큐레이션

## 읽고, 느끼고, 즐기고

선선한 가을바람은 책 향기를 품고 온다.  
그런데 뻥뻥한 책장과 일렬횡대로  
펼쳐진 열람석으로 가득한 도서관은  
어쩐지 끌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트렌디한 감성도  
충전할 수 있는 도서관은 어떨까. 명랑한  
변신을 감행한 '요즘식' 공공도서관 세  
곳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협조 의정부미술도서관,  
안양파빌리온, 부산도서관



미술을 품은 도서관

## 의정부미술도서관

📍 주소: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 248

☎ 문의: 031-828-8870

‘책 읽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의정부시에는 미술과 책이 융합된 의정부미술도서관이 있다. 1, 2, 3층이 모두 뚫려 있어 건물 내부가 빛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책’과 ‘예술’ 모두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전국 최초의 미술 특화 공공도서관인 이곳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형태에서 진일보한 감각적인 공간과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설치된 가구 하나하나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디자인돼 있고, 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화하고자 전면 유리창을 내어 답답한 느낌을 없앴다. 종합자료실 겸 전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1층 아트그라운드에는 ‘미술 특화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나라에서 공수한 아트북, 다채로운 디자인 서적과 그림책 등 1만 2,000여 권의 미술 전문 도서를 비치해 방문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더해, 작업 공간이 필요한 신진작가 지원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및 청년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민의 서재, 도시의 거실

## 부산도서관

영국의 공공이론가인 켄 워폴은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도시의 거실’에 비유한다. 시민들의 소통의 장,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작용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표현한 셈이다. 2020년 부산 사상구에 개관한 부산도서관은 ‘도시의 거실’이라는 명칭에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부산 최초의 직영도서관인 이곳은 시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지식놀이터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한 개방적 구조로 인근 주거지역과 소통하는 공공 보행로를 확보해 주변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외부공간으로 설계했다. 규모도 방대하다. 연면적 16,305.44㎡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도서관은 11만 1,969권의 다양한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 등 7,589종의 비도서 자료로 가득하다. ‘독서실형’ 열람실이 따로 없기에 공간이 널찍하고 어디든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화 북큐레이션, 전시와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며 부산시민의 지식문화를 양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소: 부산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

☎ 문의: 051-310-5400

공공예술의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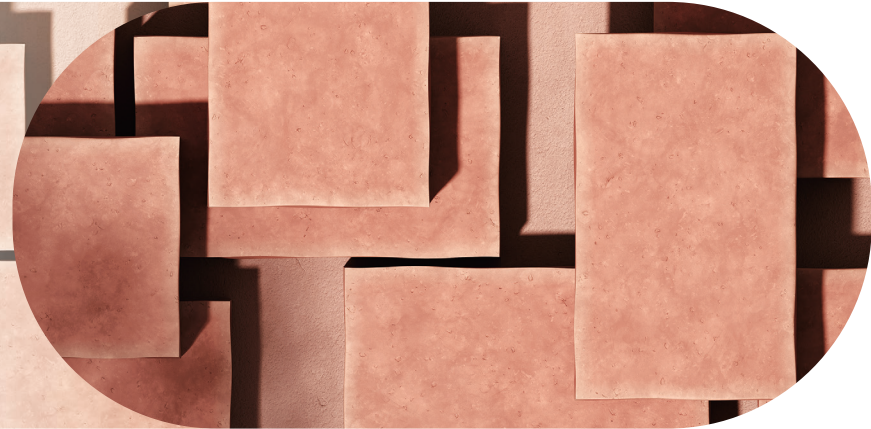
## 안양파빌리온

📍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

☎ 문의: 031-687-0548

안양파빌리온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일환으로 지어진 국내 최초 공공예술 전문 복합서가이다. 이곳은 책상·의자·책꽂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구가 종이로 구성된 작품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족히 5m는 되어 보이는 높은 층고와 함께 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원형 조형물 역시 골판지를 활용한 작품이다. 밖에서 볼 땐 안의 느낌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고, 어느 각도에서도 같은 형태로 읽히지 않는 특유의 공간 구성과 건축 문법 덕분이다. 세계적인 모더니즘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친환경 소재인 종이를 활용해 각 공간마다 실용성의 미학과 재미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가에는 공공예술의 역사, 여러 예술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와 영상 자료 2,000여 점이 구비돼 있다. 또 시민들이 ‘공공예술을 읽고, 이야기하고 나아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상상을 뛰어넘는 소재의 변신

친환경 건축 소재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황토, 목재 외에도 고품양, 해초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소재가 친환경 건축 소재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남다른 실험정신과 창의력이 빛나는 친환경 건축 소재 연대기를 알아본다.

글 편집실

#### 테라코타

19세기부터 기와, 벽토 등에 사용된 테라코타(Terracotta)는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이라는 뜻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흙으로 빚어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에 도자기 등의 예술작품이나 기와나 타일, 내화벽돌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테라코타는 흙을 재료로 800~100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초벌구이 상태로 굽되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테라코타 패널과 판넬은 순수 점토와 물만 이용해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구운 친환경 건축 마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열 복사율이 거의 없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으며 경량이라 고층 건물에도 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건물의 외벽 면에 붙이는 대형 타일로 많이 쓰이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상징적 마감재로 유명하다. 국내에는 리움미술관, 강남 교보타워 등이 그가 만든 대표적 건축물이다.

1800

Terracotta

#### 스트로베일

‘스트로베일(Straw-Bale)’은 볏짚을 뜻하는 ‘스트로(Straw)’와 가벼운 것을 단단히 묶는 더미 또는 덩어리를 가리키는 ‘베일(Bale)’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볏짚으로 지은 집’을 뜻한다. 경제성, 친환경성, 기후 적응력까지 완벽한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1850년대에 발명되어 1890년대에 널리 퍼진 기계식 건조 포장기계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19세기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말과 목축이 주업이던 네브래스카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나 돌이 부족해 밀짚을 많이 비축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기계로 압축해 만드는 사각 볏짚이 그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에는 평균 실내 온도가 목조주택보다도 3~5℃ 낮으며, 겨울에는 난방비가 일반주택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단열 효과도 높다고 한다. 습도 조절과 통기성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1850

Straw-Bale



1923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 ALC

숨 쉬는 벽으로 불리는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는 천연 소재인 규석이 주원료이며 생석회, 석고, 시멘트 등을 혼합하고 발포시켜 고온·고압의 설비에서 증기 양생한 친환경 건축 소재다. ‘고온·고압 양생 경량 기포 콘크리트’로도 불리는 ALC는 1923년 스웨덴에서 개발된 후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던 ALC는 최근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체(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은 받지 않는 벽체)와 바닥재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ALC를 활용한 블록은 친환경 무기질로 이뤄진 덕분에 건축 소재로 인한 아토피 등의 질병이나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롭다. ALC를 이루고 있는 무기 광물질은 소재의 내화성을 높이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목모 보드

천연 원목을 가늘게 절단한 후 무기화합물, 시멘트 등을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제작한 흡음 마감 소재인 목모 보드(Wood Wool)는 미국에서 제조되기 시작했다. 소음을 잘 흡수하는 방음 기능과 더불어 불에 잘 타지 않아 난연성도 매우 우수하다. 단열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섬유 속에 수많은 기공층이 있어 실내 습도 조절에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내구성이 강해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해충 서식이 어려워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 내부 마감재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간편한 시공과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목모 보드는 강당, 체육관, 종교시설, 방송실 및 녹음실 등 대형 실내 공간 시공에 널리 활용된다.

Wood Wool

1940







바이오브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에 개발한 친환경 벽돌 바이오브릭(Bio Brick)은 최근 개발된 가장 독특한 건축 소재다. 연구진들은 실험에서 석회 가루가 가득 찬 휴대용 소변기에 소변을 모아 시간 변화에 따른 석회 가루와 소변의 혼합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인화 칼슘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소변이 석회 가루와 섞이며 유해한 병원체나 박테리아가 박멸된다는 장점을 활용, 인화 칼슘이 형성된 소변 액체를 모래와 혼합해 굳혀 벽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바이오 벽돌은 회색빛을 띠며 기존 벽돌에 버금가는 단단함을 지닌다. 가마에 굽는 기존 벽돌 제작 방식과는 달리 바이오 벽돌은 고온이 필요치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없다. 또 분뇨로 처리돼야 할 사람의 소변을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8

Bio Brick

케나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방대하게 자라는 케나프(Kenaf, 양삼)는 섬유작물로서 생분해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를 맑게 하고 수중의 질소나 인산을 흡수해 물을 정화하는 친환경 작물이다. 케나프는 6개월 동안 최대 5m까지 자라 1ha당 20만t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작물이며, 일반적인 목재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건축용 목재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건축 자재 대기업 마츠시마에서는 말레이시아 업체와 합작해 케나프 섬유를 이용한 보드 개발에 성공했다. 아열대성의 식물인 케나프 섬유로 만든 섬유 보드는 4mm임에도 9mm의 베니어 합판보다 강해 건축 자재로도 그 역량을 넓히고 있다. 케나프 섬유는 높은 난연성, 방수성과 부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강하고 가벼우며 잘 부서지지 않아 자동차와 항공기 내장재, 건축용 보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1

Kenaf



2022

Seaweed Panel

해초 패널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박민홍(앤디 박) 씨는 해조류를 바이오필러로 이용한 해초 바이오 복합 패널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혁신적인 친환경 보드는 내화습기 조절 기능이 있으며,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경제성 있는 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해초와 석고 간 최적의 혼합 비율을 파악했고, 초기 연구에서 해초 보드는 일반적인 석고 보드보다 습기를 더 잘 흡수해 단열과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점도 알게 됐다. 해조류는 천연 난연제인 붕소를 함유해 발화 위험을 줄이고, 난연성을 높이며, 화재 시 소화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초가 시멘트와 결합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며, 해조류와 그 주성분인 알지네이트도 열 안정성이 높으면서 열전도율이 낮아 화재 발생 시 보드 분해 시간을 늦춘다. 또한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이 높다. 해초 보드는 재활용해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도 지닌다.

마이코크리트

제인 스콧 영국 뉴캐슬대 생명공학과 연구팀은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 소재를 개발했다. 곰팡이에 곰팡이 성장을 돕는 곡물을 섞어 만든 건축 재료는 실제 친환경 건축물에 활용될 정도로 단단함과 유연함을 갖췄다.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오엔지니어링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론티어〉에 발표했는데, '마이코크리트(Mycocrete)'라는 이름을 붙였다. 곰팡이 균 사체에 모직, 톱밥, 섬유소 등 다양한 바이오 재료를 섞은 뒤 뜨개질한 직물 형태로 만들어 산소 투과성을 높인 거푸집에 재료를 결합했다. 목재나 플라스틱보다 저렴하면서 단단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장력과 압력, 굴곡 강도 등 테스트에서 건축물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합격점을 받았다.

Mycocrete

2023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 가치를 더하는 행보

벽산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직원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발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 등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벽산의 사회활동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1



### 장애인 직원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

벽산은 장애인 직원이 해당 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그러던 중 기업 SNS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영상 제작 직무를 개발하게 됐다. 이에 2021년 하반기부터 홍보영상 제작 전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1년간의 육성 과정과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벽산 테레비'를 장애인 직원들이 편집과 제작에 참여하면서 벽산 홍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벽산은 올해부터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업 홍보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플랫폼(SNS)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채택근무 형태의 사내 메타버스인 '벽산타운' 가상 오피스를 활용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동영상 제작 편집을 진행한다. 장애인 직원들은 앞으로 확장될 벽산의 기업 홍보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



### 벽산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벽산은 지난 4월,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을 실시했다. 벽산의 채용 직무는 관리 직무(법무, 회계, 경영지원, 부동산개발, 사업지원), 기술 직무(시스템 지원, R&D) 영업 직무(B2B 영업관리), 생산 직무(생산지원, 공장관리)로 나뉜다.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는 9주간 인턴십 과정을 수행하며, 현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장을 위한 직무 전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인턴 기간은 지원자도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인 동시에 회사도 지원자를 지켜보면서 향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인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턴 근무 후 임원면접(PT면접)이 이루어지며,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후 평가우수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된다. 벽산의 채용연계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2년에는 76%, 2023년은 84.6%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앞으로도 벽산은 효율적인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



###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플로킹 캠페인

지난 7월 12일 벽산 김성식 대표이사는 임직원, 신입사원들과 함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를 정화하는 플로킹(Ploking) 캠페인 '벽산 쓰담 견기'를 진행했다. 본사가 위치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벽산 플로킹 캠페인 '벽산 쓰담 견기'는 지난 5월 선발된 2023년 채용연계형 인턴 중 84.6%가 신입사원으로 전환 입사한 첫날 진행한 행사로, 그 의미를 더한다. 신입사원들이 단순히 취업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벽산은 보다 폭넓은 시야로 다각적인 ESG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 10대 여성 자립을 위한 새벽장학기금

벽산은 10대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후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제도권 밖의 10대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새날에오면과 함께 후원을 이어온 벽산은 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10대 여성들이 바리스타 인종 교육기관에서 정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이러한 후원은 회사 차원의 활동을 넘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후원을 이어 나가기 위해 벽산과 새날에오면은 함께 새벽장학기금을 만들어 10대 여성들의 자립에 필요한 후원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 등 정규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진학장학기금 및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교육기관 교육비 등을 후원하는 도전장학기금 제도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10대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기부금 1억 원 전달

지난 2월 벽산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고려인 귀국 후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왔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소아 청소년 환아들의 건강 회복을 기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환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및 환자 지원금을 후원하게 됐다. 벽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나를 위로하는 마음 건강

## 벽산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벽산에서는 근로자의 마음을 돌보는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리뉴얼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이 늘어날수록 벽산은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리 편집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의 해소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마다 근로자의 건강, 가족 문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등을 지원하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그 중 비대면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호응이 높다. 온라인 마인드 케어 프로그램인 '마인들링(Minding)',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인 '마인드카페'가 대표적이다. 마인들링은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테스트로 심리 패턴을 검사한 후 온라인 영상과 코칭을 통해 건강한 마음 습관 가이드를 제공한다. '마인드카페'는 '심리상담 & 마음 치유 플랫폼'으로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심리상담이다.

심리상담만으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가정이나 직장 등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타인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벽산의 마음 씬 심리지원센터

벽산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리뉴얼해 직원들이 더욱 편안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음 씬 프로그램은 신청 시 상담사와 함께 개인 상담 일정을 정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개인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1회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혹시 상담을 신청하면 무슨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마음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관리로 생각하자. 벽산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건강해야 업무의 만족도와 효율성이 증가하고 기업이 건강해지며, 기업이 건강할 때 기업의 핵심 가치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벽산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 프로세스        | [현재 수준 진단]<br>통합 스트레스 검사 | 상담 및 케어 영역 담당                | 코칭 영역 담당                                                                                                                                         |
|-------------|--------------------------|------------------------------|--------------------------------------------------------------------------------------------------------------------------------------------------|
|             |                          | 일반 상담사                       | 전문 상담사 연계<br>(상담 심리학박사)                                                                                                                          |
| 심리유형<br>콘텐츠 | 스트레스 유형 및<br>심리유형 진단     | 스트레스<br>대인관계<br>불안장애<br>공황장애 | <b>[개인 심리문제 영역]</b><br>감정 / 문제해결 / 인간관계 리더십 /<br>목표 달성 / 부정적 감정<br><br><b>[가족 지원]</b><br>결혼 전&결혼 후 부부 상담으로<br>부부 갈등 해결 / 부모와 자녀 대화,<br>자녀 진로상담 등 |

## 벽산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

“괜찮아, 그럴 수 있어”

-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사람
- #업무 집중이 안되는 사람
- #감정조절이 어려운 사람
-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사람
-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상담 시 '스트레스 검사(자기진단) → 상담 & 코칭 → 치료'의 전문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상담사와 직원 간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마음씬 상담 전화 02-2260-5691, 5692





##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양혁주 사목



###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사람이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몸에는 운동을, 마음에는 미소를, 영혼에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이다.”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가 한 말로 나의 몸, 마음,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문장이다. 늘 나에게 질문한다. “몸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신과 타인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직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기준이 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갈 즈음 1년 6개월(2022.01~2023.06) 동안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정서적 거리두기로 이어졌다. 이는 사람의 온기를 식게 만들었고,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단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사람들의 정서적 온도가 차가워졌다. 자연스럽게 정서적 온기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화하는 일대일 면담이었다. 따뜻한 대화로 식은 온기를 회복하는 것, 그동안 불안했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면담의 목표였다.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세요?” “행복했던 일화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다.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만 향해 있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위함이다. 나의 질문을 받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풀어놓았다.

### 사람을 살리는 대화

일대일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다.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그리고 나는 귀담아 경청한다. 일대일 면담은 어색하고 조금은 경직된 분위기로 시작되지만 질문을 듣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색함은 친밀함으로, 경직됨은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점점 편안해진다. 웃고 울며 나는 이야기 중 힘든 이야기도 많았다. 사람들은 실제로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자기비난, 자기고립, 자기매몰’이라는 세 가지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인다(〈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거머 저서 중). 어떤 사람도 나쁜 일, 실패를 피해 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세 가지 문장이 자주 떠올랐다. 세 가지 문장은 내가 힘들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문처럼 해주는 말이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죽 그랬으면!”이라고 말해주며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해주는 것이다.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할 때도 많이 했던 말이다. 이 말을 건네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위로받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하게 대화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유연해지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대화는 사람을 살린다. 나를 만나 준 직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벽산에는 ‘마음 쉽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기업 문화 안에서 만들고, 더 나아가 기업과 직원이 아닌 사람 냄새 가득한 진심을 나누고 싶다.

## 상담자의 마음 관리에 따른 상담 효과

글 이성민 사목



###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의 과정

누군가 나에게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와의 협력적 상담 관계라고 답한다. 그동안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실은 더욱 견고해졌다. 내담자와의 협력적 상담 관계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협력적 상담 관계가 형성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상담 효과로 나타난다. 반면 비협력적 상담 관계에서는 좋은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신뢰는 ‘타인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의도와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더불어 그를 돕기 위해 나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상담자가 제안하는 몇 가지 솔루션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가 상담 초기에 잘 형성되면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상담자 역시 노력해야 한다. 먼저, 상담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마음 관리가 필요한데, 마음 관리를 위한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의 과정을 일상에서 습관화하면 좋다.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는 성찰과 통찰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 경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기질과 성격을 객관화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했다면, ‘자기 돌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인식을 통해 파악하게 된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건강한 자아 형성은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의 과정이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 내담자를 향한 진실한 공감과 표현

좋은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건강한 마음 관리는 물론이고 상담 현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상담할 때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해 내담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상담 기법은 상담 이론이라는 잠정적 가설 안에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따라서 심층적인 관계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계의 내용보다 관계의 방식을 말한다.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내담자를 사랑과 공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담자는 편견 없이 내담자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 내면의 손상되고 결핍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보듬고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자의 건강한 마음 관리와 상담 현장에서의 유연한 관계적 접근은 내담자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벽산 직원들의 마음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마음 쉽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기초체력을 쌓듯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들어 몸이 많이 경직된 것 같아 동네 한의원에서 주 1회 추나 요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한의사에게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내 몸이 너무 굳어 있어 치료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치료를 받고 나니 처음보다 몸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증상 중 하나가 유연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굳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굳어지는 것은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오랜 세월 종사하며 전문가 혹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 곧 태도와 사고가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태도(문성후 저)〉라는 책에서 리더십 실패의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메가 인지(Mega Cognition) 실패. 이것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면서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패턴 재인식(Pattern Recognition) 함몰. 새로운 이슈를 인식할 때 자신이 과거 경험했던 어떤 유형의 틀에 맞춰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 딱지표(Emotional Tagging) 오류. 무언가를 평가할 때 합리성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근거한 감정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짓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실패의 공통점은 '자기 박스(Box) 탈출 실패'입니다.

자기 확신은 없는 것보다 나올 수 있고, 특정 분야 경험은 유익한 것이며, 감정은 사회생활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박스 안에 갇혀 작동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유연성 없고, 고집 세고, 현실감 없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박제화' '화석화' '게토화'라고 부릅니다.

시대와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여건마저 너무 빨리 변하는 이때, '유연성'이라는 요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영이든, 직장 생활이든, 개인 생활이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나도 여전히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과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거절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실수를 통해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추게 됩니다. “나보다 후배가 더 잘해도 된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훌륭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고 있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조직과 공동체에서 본이 되며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당장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인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적용된 것을 'тол레랑스(Toleration)'라고 합니다.

흔히 '관용'이라고 번역되는데 나와 다른 그 무엇을 용납하고 공존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тол레랑스를 '배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선진화된 사회는 배려가 잘 작동합니다. 사회뿐 아니라 더 작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려가 실천되면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тол레랑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 하나하나를 배려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보 리더가 실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유니포미티(Uniformity, 획일성)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직이 계획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리더는 나이브(Naive, 순진무구)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각 멤버가 고유한 인격체로서 각기 다른 존재 방식을 가졌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도 다양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자일(Agile, 민첩한) 리더십이 점점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팀장은 과장, 막내 사원,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을 대할 때 각각 획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 맞는 기준을 생각하고 적절하게 적용합니다. 즉 피보팅(Pivoting, 기존 사업 아이템을 포기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방향 전환에 나서는 것) 같은 것이지요. 책임질 때는 자기가 나서지만, 공로를 치하할 때는 팀원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조직은 유니폼(Uniform, 획일성)을 입지 않으면서도 유니티(Unity, 연합)를 이루는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획일적인 조직에서 창의성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뭉친 조직에서는 창의성이 마음껏 도출되고 발휘됩니다.

тол레랑스가 발달된 사회에서 창의력이 풍성히 구현된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도(Attitude)에서 행동(Behavior)이 나오고, 거기에서 습관(Custom)이 형성되며, 이것이 결국 운명(Destiny)을 만든다는 점에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중 겸손과 배려야말로 최우선 요소입니다.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만 알고, 함부로 남을 하대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과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고립되고, 어리석고, 도태된 모습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태도가 유연해야 삶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리더이자 멘토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어떤 유약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온유는 “훈련되고 절제된 강함(Trained and Controlled Strength)”입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훈련되고 절제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 역시 그냥 자존감 낮은 몰러남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겸손은 “훈련되고 절제된 자부심(Trained and Controlled Pride)”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해도 훈련되고 절제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연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을 '서번트(Servant, 종)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벽산의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유연함을 함양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옆자리 동료로 대할 때, 협력 업체와 고객을 만날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 #해외사업

### 벽산,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건축박람회 참가

벽산은 최근 인도네시아 땅고랑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건축박람회 ‘인도빌드테크 2023(INDOBUILDTech 2023, Indonesia Building Technology Expo 2023)’에 참가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도빌드테크 2023는 인도네시아의 건축문화와 자재,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및 디자인을 선보이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건축 관련 전시회로 500여 개가 넘는 브랜드가 출품됐다.

벽산은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의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인 베이스패널 제품을 선보였다. 이는 우수한 불연성을 기본으로 경량성과 내구성, 안정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 무석면 조립식 패널이다. 벽산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꾸준한 수요와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낯선 아이템인 베이스패널을 통해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신규 건설투

자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시장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벽산은 해외사업개발팀을 비롯해 외장재영업팀, 음성공장, 사업지원팀 등 전문인력을 구성해 전시회에 참가, 현지 설계사와 건설사, 제조사 및 건축주 등 다양한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시회 후에도 제품 설명 등을 위한 화상회의를 이어가면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김성식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 각광받고 있는 베이스패널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많은 관계자에게 호응을 얻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을 이어나가 세계시장에 베이스패널의 우수함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RPA 홍보관 오픈

### 벽산, RPA 홍보관 오픈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벽산은 디지털 전환과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도입한 RPA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가상오피스인 ‘벽산타운’에 RPA 홍보관을 오픈했다. 지난 2020년 DX 혁신 실천 방안으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파일럿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직무별로 다양한 업무의 최적화 및 자동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했고, 구축된 결과물들을 활용해 RPA 홍보관을 구성하게 됐다.

RPA 홍보관은 내부 직원의 RPA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증대를 위해 사용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오피스인 ‘벽산타운’에 오픈했으며, RPA 포탈을 통해 소통과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RPA 경진대회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용 방안과 추가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벽산은 고지서를 포함한 여러 비용의 자동전표 입력 등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반복적이면서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방대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개발 과제의 고도화를 전개하면서 계열사 확장과 시와의 접촉 등 체계적인 시스템 전환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성식 대표이사는 “이번 RPA 홍보관 오픈을 통해 RPA가 단순업무를 대신해주고 시간을 줄여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바꿔주는 변화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폭넓게 가속화시켜 벽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Haatz

1

(주)하츠 바스 사업 진출 사업설명회 성료

주방가전 및 환기 시스템을 넘어 집 전체의 토털 홈인테리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주)하츠가 바스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7월 13일 하츠 평택공장 대회의실에서 하츠 유통 딜러(대리점) 대표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츠 바스(HAATZ BATH)’ 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하츠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확장하고 있는 욕실 사업 분야 신사업의 비전과 대리점 영업 전략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으며, 우수한 품질은 물론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내세운 욕실 시장 공략과 브랜드 발전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하츠 주방가전 및 환기 시스템과 연계된 욕실 사업의 콘셉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하츠 영업본부장 진용균 전무는 “이번 하츠의 바스 사업은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하츠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하츠는 평택공장에 마련된 쇼룸을 통해 위생도기, 기능성 수전, 일체형 비데 등 하츠의 다양한 욕실 상품을 공개하고 샘플 투어를 진행했다. 바스사업팀 한동석 팀장은 “앞으로 하츠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과 앞선 트렌드를 제시해 시장 공략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하츠 바스 론칭’

프리미엄 주방가전 선도기업 (주)하츠가 욕실 인테리어 브랜드 ‘하츠 바스(HAATZ BATH)’를 론칭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며 욕실 인테리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1988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국내 주방기기 시장을 선도해온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기업 (주)하츠의 바스 브랜드는 지난 8월 정식 론칭했다.

(주)하츠의 ‘하츠 바스’는 고품격 욕실 전문 브랜드로,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고품질의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고급스러운 욕실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위생도기, 기능성 수전, 욕실 액세서리, 일체형 비데 등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사용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츠 바스’는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을 선보이며, 지난 7월 13일 하츠 평택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츠 바스’ 신사업 설명회에서 하츠 유통 딜러(대리점) 대표들에게 열린 반응을 끌어낸 바 있다.

(주)하츠 바스사업팀 한동석 팀장은 “이번 하츠 바스의 론칭을 통해 거실과 주방을 넘어 더 깨끗하고 품격 있는 욕실 브랜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주)하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욕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바스 유통점 신규 계약 프로모션으로 매장 전 시지원, 간판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통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B Network

벽산 네트워크



|       |                                  |              |
|-------|----------------------------------|--------------|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10F, 14F) | 02-2260-6114 |
| 충부지점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131                 | 031-528-0554 |
|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10          | 042-628-0823 |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91                | 053-565-0550 |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5번길 19          | 062-523-0063 |
| 부산지점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63              | 055-367-7880 |
| 인천영업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24               | 032-578-2622 |
| 전북영업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355             | 063-214-3493 |
| 마산영업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126 석호빌딩 404호  | 055-299-5397 |
| 익산공장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75                 | 063-830-8800 |
| 영동공장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500-42         | 043-742-0704 |
| 음성공장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초금로71번길 144         | 043-877-2916 |
| 홍성공장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산단로 388번길 100       | 041-406-8007 |
| 여주공장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경충대로 1418            | 031-882-3434 |

하츠 네트워크



|       |                                   |              |
|-------|-----------------------------------|--------------|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한석타워(11F, 12F) | 02-3438-6799 |
| 평택공장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              | 031-370-7500 |
| 부산사업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46 해원빌딩(5F)       | 051-505-4551 |
| 대구사업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6 대성빌딩(11F)         | 053-741-4102 |
| 호남사업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7F)         | 062-941-6071 |
| 충청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13번길 23-24          | 042-488-8033 |

벽산페인트 네트워크 대표전화 1588-0369



|         |                                            |              |
|---------|--------------------------------------------|--------------|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904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 02-6958-3910 |
| 수도권 영업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905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 02-6958-3950 |
| 충부권 영업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10(와동)                | 042-636-7706 |
|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5번길 19(용봉동)               | 062-512-0086 |
| 남부권 영업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91(유천동)                     | 053-644-3252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08동 2층 209호(대저2동)    | 051-975-0052 |
| 외주관리팀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20-27(어곡동)                   | 055-785-5702 |
| 기술팀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20-27(어곡동)                   | 055-785-5702 |



공간에  
**ZERO**  
를 더한다

대한민국 대표 건축자재 브랜드

